

BIBLIOGRAPHY

Berkouwer, G. C. & van der Woude, A. S. (ed.), *Wat is waarheid*, Kampen, 1973.

Dooyeweerd, H.,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Nutley, N. J., 1968.

Kant, I., *Foundation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 by L. W. Beck, Indianapolis & N. Y., 1959.

Kittel, G.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1933.

Knudsen, R.D., *The Idea of Transcendence in the Philosophy of Karl Jaspers*, Kampen, 1958.

Kroner, R., *Kant's Weltanschauung*, tr. by J. E. Smith, Chicago, 1956.

Moltmann, J., *Theology of Hope*, tr. by J. W. Leitch, N. Y. & Evanston, 1967.

Smith & Grene (ed.), *Berkeley, Hume and Kant*, Chicago, 1940.

Van Til, C., *In Defense of the Faith II*,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9.

—————,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 Philadelphia, 1969.

—————, *The Reformed Pastor & Modern Thought*, Philadelphia, 1971.

Vrielink, J. H., *Het Waarheidsbegrip*, Nijkerk, 1956.

마태복음에 나타난 舊約引用의 問題

姜 勇 元 *

◇ 目 次 ◇

- I. 서 론 : 일반적 고찰
- II. 마태 자신의 인용
- III. 예수님의 인용
- IV. 결 론 : 비교 및 검토

I. 서론 : 일반적 고찰

구약과 신약의 신학적 연결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신약성경의 구약 인용 문제가 많이 논의 되고 있다.¹⁾ 많은 학자들은 이 연결을 “성경적 증명”(scriptural proof) 이라고 부른다.²⁾

Nestle-Aland의 회람어 성경엔 257귀절의 명백한 인용구를 보인다. R. Nicole 은 적어도 295개의 개별적 인용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24개는 어떤 명확한 형식에 의해 소개된 직접적 인용 이라고 한다.³⁾ 이 인용은 신약성경의 약 352절에 해당된다. 또한 Grobel은 구약이 약 150번 명시적으로 인용되었고, 약 1100번이 암시적으로 인용되었다고 한다.⁴⁾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의 연결 문제가 성경의 인용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약에 대한 인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광범위한 인용의 의의와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⁵⁾

* 專任講師

1) cf. Gerhard Hasel,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2), pp. 125~127.

2) 독일과 화란에서는 이것을 “skrifbewys”라 부르는데 이것은 “scriptural proof”라는 말로 해석 될 수 있다. Pieter A. Verhoe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ed. by J. Barton Payne (Waco, Texas: Word Books, 1970), p. 282.

3) R. Nicole, “New Testament Views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by C. F. H. Hen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p. 137.

4) K. Grobel, “Quotations,” *IDB*(Nashville, 1962), III, p. 977.

5) cf. A. Verhoef, *op. cit.*, p. 284; R. Nicole, *op. cit.*, p. 144; Gerhard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8), p. 188.

마태복음에서의 구약 인용은 Nestle 성경에는 대략 94회 정도로 나타난다. 인용된 구약의 성경은 시편과 이사야가 많고 그 다음으로 신명기서가 인용되었으며, 다니엘과 스가랴서도 다른 성경에 비해 많이 인용되었다.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은 다음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 인용으로 약 70회 정도 나타나고,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인용한 것이 약간 있다.⁶⁾ 그리고 마태가 도입형식 (introductory formula) 을 사용하여 인용한 것이 11개가 나타나며, 그외에 마태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중에 사용한 것이 있다.⁷⁾ 마태가 도입형식을 이용한 구절은 예언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것이 특이하다.⁸⁾

본고에서 필자는 마태가 도입형식을 통해 인용한 11개의 인용문과 예수께서 인용하신 직접적인 인용문을 분석,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한다. 물론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신 구약성경에 대한 연구는 그 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색되었다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채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용을 따로 문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한 말씀의 정확한 전달을 믿는 입장에서 복음서 기자가 직접 인용한 구약 인용과 예수님의 구약 인용 사이에 어떤 인용상의 차이점이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만약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마태 자신의 인용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도입형식을 가지고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것이 11개 나타난다. 이제 이 구절들에 대해 히브리 마소라 본문(MT)과 70인역(LXX) 및 마태복음 본문(NT)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 23)

이 구절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라는 도입형식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 구절은 이사야 7 : 14의 인용인데 MT에는 “그러므로 주 자신이 징조를 너희들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리라”(בִּרְאֵהוּ)는 말은 기록 전통과 구전전통이 상충된 말이다. 기록전통인 בִּרְאֵהוּ 는 모음 없이 전해진 것이므로 “네가”(בִּרְאֵהוּ, 2인칭 남성 단수) 혹은 “그 여자가”(3인칭 여성 단수 연제형)로 볼 수 있다.⁹⁾ 그리고 구두전통은 “그가”(בִּרְאֵהוּ, 3인칭 남성 단수)로 전해왔다. 그런데 이사야 사본(1 QI^a)은 “그가”

6) 2 : 6 (석기관), 19 : 7 (바리새인들), 21 : 9 (무리들), 21 : 15(아이들), 27 : 43(대제사장)

7) 9 : 36 ; 26 : 15 ; 27 : 34 ; 27 : 35 ; 27 : 39 ; 27 : 48 등.

8) 3 : 3은 도입형식에서 “성취되었다”는 표현이 없다.

9) J. R. Rosenbloom, *The Dead Sea Isaiah Scrolls: A Literary Analysis* (Grand Rapids: Eerdmans, 1970), p. 15.

(בִּרְאֵהוּ)로 되어있다. 그리고 LXX의 B (Codex Vaticanus)와 A (Codex Alexandrinus), Aquila, Symmachus, Theodotion은 “네가”(καλέσεις,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으나, LXX의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은 “그가”(καλέσει)로 하고 있다.

이 이사야 7 : 14을 인용한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부르리라”(καλέσουσιν)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부르리라는 말은 그 어떤 사람이 부를 것이라는 말인데, 혹자가 그렇게 부르리라는 말과 같다. 이것은 비인격적이나 부정(不定)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수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용법이며 Vulgate의 Vocabitur 라는 말의 지지를 받는다.¹⁰⁾ 이것은 신약의 본문이 사해사본에서 발견되는 본문전통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¹⁾

그러나 신약의 본문은 πᾶς 를 LXX와 같은 παρθένος 로 사용하므로 LXX의 영향을 보여준다. 마태는 이사야 7 : 14의 메시아 예언이 문자적으로 예수께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 헬라어 παρθένος 는 LXX의 영향을 통하여 유대교의 회당에서 히브리어 πᾶς 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¹²⁾ 신약 본문과 LXX의 차이점은 MT의 בִּרְאֵהוּ 가 신약에는 ἔξει 로 되어 있으나, LXX에는 λήμεται 로 되어있는 점이나, 별로 큰 상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신약성경의 본문은 LXX의 영향을 받은 느낌은 있으나, 3인칭 복수의 비인칭적 용법의 사용을 볼 때, 이 본문은 히브리 본문에 더 가까운 것을 보게된다.

(2 : 15)

이 구절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라는 말로 인용되며, 호세아 11 : 1의 인용이다. MT는 “내가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로 되어 있다. 마태는 이 구절을 τὸν υἱόν μου 로 번역하므로 MT와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으나, LXX는 τὰ τέκνα αὐτοῦ 로 “그의 아들들”로 되어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LXX와 MT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MT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세아 11장에서 예언자는 “나의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집합적인 동의어로 사용하였는데, 마태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재해독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이 예수님 개인에게 적용된 것을 신구약 연결의 잘못으로 보기도 하나,¹³⁾ 마태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이며 구속적인 경험속에서 궁극적으로 지향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본 것이다.¹⁴⁾

10) G. R. Driver, *The Judean Scrolls* (Oxford: Blackwell, 1965), pp. 443~444.

11) cf. J. de Waard, *Comparative Study of the Old Testament Text* (Leiden: Brill, 1965), pp. 9f, 82.

12) Aquila는 παρθένος 가 아니고 νεαῖς (젊은 부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보다 늦은것인데, 기독교적인 사용에 대한 반발로 나온것 같다. Symmachus역도 마찬가지이다.

13) A. Verhoef, *op. cit.*, p. 283.

14) Richard N. Longenecker,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Grand Rapids: Eerdmans, 1975), p. 145.

(2 : 18)

이 구절은 예레미야 31 : 15(LXX = 38 : 15)의 인용으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바”라는 도입형식을 갖는다. 이 구절의 M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마에서 통곡소리가 들리며, 심한 울음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이다. 그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신약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마태가 MT에 기초하여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LXX는 MT와는 다른 번역을 하고 있다.

“Ραχὴλ ἀποκλαιομένη οὐκ ἤθελε παύσασθαι ἐπὶ τοῖς υἱοῖς αὐτῆς, ὅτι οὐκ εἶσάν.”(라헬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는것을 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기 때문이다.)

LXX는 ἡμεῖς, ἡμεῖς (그 여자가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첫 문장의 마태복음 인용이 LXX와 다른 점은 θρήνου가 생략된 점이다.¹⁵⁾ 그러므로 이 구절은 LXX와 MT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본문은 MT를 따르고 있다.

(2 : 23)

이 구절이 구약의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11 : 1에 나오는 “줄기”(גִּזְיָה)라는 말의 음을 따서 만든 것이 아닌가 본다. 그러나 사사기 13 : 5~7과 16 : 17에 나오는 나실인 삼손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G. F. Moore와 W. F. Albright는 마태가 사용한 Ναζωραῖος는 “나사렛의 거민”을 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야 11 : 1의 גִּזְיָה와의 관계를 반대한다.¹⁶⁾ E. Schweizer는 예수 그리스도가 Ναζωραῖος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사사기 16 : 17에서 גִּזְיָה로 묘사된 나실인 삼손과의 유형론적인 일치로 볼 수도 있으며, 또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언어의 유희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사사기 16 : 17의 גִּזְיָה는 LXX의 B에서는 ἄγιος로, LXX의 A에서는 ναζωραῖος로 되어있다.¹⁷⁾

또한 마태는 그의 도입형식에서 “그 선지자들을 통한 말”(τὸ ῥηθὲν διὰ τῶν προφητῶ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태가 이사야서 11 : 1보다는 사사기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사기서는 히브리 구약성경의 구분에 의하면 전 선지서에 속하며, 마태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 후선지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복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⁸⁾

또한 Nestle 판에는 이 부분이 인용된 구절임을 표시하는 검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지 않아 흥미롭다. 이상에서 본 것 처럼 이 구절은 구약의 어느 구절의 인용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¹⁹⁾

15) 어떤 신약의 사본은 LXX와 같이 θρήνου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16) cf. Richard N. Longenecker, *op. cit.*, pp. 145~146.

17) *Ibid.*

18) 도입형식으로 시작되는 마태의 인용문 11개 중에서 마 2 : 23만이 “선지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19) cf. N. Hilleyer, “Matthew’s Use of the Old Testament”, *Evangelical Quarterly* XXXVI (1964), p. 12.

(3 : 3)

이 구절은 도입형식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로 되어 있어서, 마태가 도입형식으로 구약을 인용한 구절 중에서 도입형식 안에 성취되었다는 표현이 없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런 이유와 관련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 구절의 구약인용은 특이하다. 이 구절은 이사야 40 : 3의 인용으로 LXX와 마태복음의 차이는 끝 부분의 “τοῦ θεοῦ ἡμῶν”(LXX)과 “αὐτοῦ”(NT)의 차이 뿐으로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으니, LXX와 마태복음은 일치한다고 봄이 좋겠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LXX와 MT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MT의 ַבְּרִבְרִב (in the desert)가 LXX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며, 역시 마태복음 인용에서도 생략되어 있는 점이다.

마 3 : 3은 막 1 : 3과 눅 3 : 4과도 정확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마태가 그 당시에 메시아적인 사역과 관련하여 세례요한에게 적용되었던 널리 알려진 형태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 15~16)

이 구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는 도입형식을 갖는다. 이 부분은 이사야 9 : 1~2의 인용이다. [MT = 8 : 23~9 : 1] MT의 ַבְּרִבְרִב과 ַבְּרִבְרִב 라는 동사가 LXX에는 πορευόμενος와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로 되어 있어 충실한 번역을 보이고 있으나, 마태복음에는 καθήμενος와 καθήμενοι로 되어 있어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Longenecker는 거한다(dwelling)는 동사를 두번이나 강조하여 사용한 것은 의심할 것 없이 신학적 동기에서 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그리고 이 구절의 번역에는 시제의 변화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전망의 변화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이와같은 차이 외에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주로 MT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MT와 LXX의 차이점이 큰 부분은, MT의 ַבְּרִבְרִב ַבְּרִבְרִב ַבְּרִבְרִב 이 οἱ λοιποὶ οἱ τὴν παραλίαν, καὶ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요단 건너 해변의 나머지 거민들)로 된 점과 맨끝의 ַבְּרִבְרִב 이 ἐφ’ υμῶν(너희들)로 된 점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ὁδὸν θαλάσσης,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요단 건너 해변의 길)와 αὐτοῖς(그들에게)로 되어 있어 MT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본문은 LXX의 영향으로 보이는 곳이 있기는 하나,²²⁾ 주로 MT에 충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8 : 17)

이 구절은 이사야 53 : 4의 인용으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라는 말로 인용된다. 이 구절의 MT와 NT는 다음과 같다.

20) Richard N. Longenecker, *op. cit.*, p. 147.

21) *Ibid.*

22) ַבְּרִבְרִב ַבְּרִבְרִב 이 Γαλιλαία τῶν ἐθνῶν 으로 된것.

(MT)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tau\alph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cute{\alpha}\varsigma \eta\mu\acute{\omega}\nu$
: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tau\alpha\varsigma \nu\omicron\sigma\sigma\upsilon\varsigma \acute{\epsilon}\beta\alpha\sigma\tau\alpha\sigma\epsilon\nu$

(MT)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tau\alph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cute{\alpha}\varsigma \eta\mu\acute{\omega}\nu$
 $\acute{\epsilon}\lambda\alpha\beta\epsilon\nu \kappa\alpha\iota \tau\alpha\varsigma \nu\omicron\sigma\sigma\upsilon\varsigma \acute{\epsilon}\beta\alpha\sigma\tau\alpha\sigma\epsilon\nu$

MT의 $\eta\mu\acute{\omega}\nu$ (우리들의 죄들)을 LXX는 $\tau\alpha\varsigma \acute{\alpha}\mu\alpha\rho\tau\iota\acute{\alpha}\varsigma \eta\mu\acute{\omega}\nu$ (우리들의 죄들)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MT를 따라서 $\tau\alph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cute{\alpha}\varsigma \eta\mu\acute{\omega}\nu$ 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를 LXX는 $\acute{\omicron}\upsilon\tau\omicron\varsigma$ (this man)로 번역하고 있으며,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를 $\phi\acute{\epsilon}\rho\epsilon\iota$ 라는 현재형 동사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구절은 어느 구절 보다도 MT에 충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2 : 18~21)

이 구절은 이사야 42 : 1~4의 인용으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바”라는 도입형식을 갖는다. 이사야서의 인용문은 소위 “종의 노래”종의 하나이다. 이 구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따르기는 하나 마태는 LXX를 따르지 않고, MT를 따라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구절을 LXX와 비교해 볼때 “거의 모든 곳에서, 가능한 다른 동사나 명사가 대치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C. H. Dodd는 말한다.²³⁾

먼저 첫 구절(마 12 : 18)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MT)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tau\alpha\varsigma \acute{\alpha}\sigma\theta\epsilon\nu\epsilon\iota\acute{\alpha}\varsigma \eta\mu\acute{\omega}\nu$
: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tau\alpha\varsigma \nu\omicron\sigma\sigma\upsilon\varsigma \acute{\epsilon}\beta\alpha\sigma\tau\alpha\sigma\epsilon\nu$

(보라 나의 종, 그는 내가 붙드는 자요, 내가 택한 자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열방들에게 공의를 가져갈 것이다)

(LXX) $\text{'}\text{Iakov } \acute{\omicron} \text{ pa} \acute{\iota}\varsigma \text{ mou, } \acute{\alpha}\nu\tau\iota\lambda\eta\phi\omicron\mu\alpha\iota \text{ a} \acute{\upsilon}\tau\omicron\upsilon\text{' } \text{'}\text{Iorai} \acute{\lambda} \acute{\omicron} \acute{\epsilon}\kappa\lambda\epsilon\kappa\tau\omicron\varsigma \text{ mou, } \text{prose} \acute{\delta}\acute{\epsilon}\xi\alpha\tau\omicron$
 $\text{a} \acute{\upsilon}\tau\omicron\nu \eta \text{ } \psi\upsilon\chi\eta \text{ mou' } \acute{\epsilon}\delta\omega\kappa\alpha \tau\omicron \text{ pne} \acute{\upsilon}\mu\alpha \text{ mou } \acute{\epsilon}\pi' \text{ a} \acute{\upsilon}\tau\omicron\nu, \text{ } \kappa\rho\iota\sigma\iota\nu \text{ to} \acute{\iota}\varsigma \acute{\epsilon}\theta\upsilon\epsilon\sigma\iota\nu$
 $\acute{\epsilon}\xi\omicron\iota\acute{\sigma}\epsilon\nu.$

(야곱은 나의 종이며, 나는 그를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선택된 자요 내 영혼이 그를 받아들였다.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가져올 것이다.)

(NT) $\text{'}\acute{\omicron}\delta\omicron\upsilon \acute{\omicron} \text{ pa} \acute{\iota}\varsigma \text{ mou } \acute{\omicron}\nu \eta\gamma\epsilon\tau\iota\sigma\alpha \acute{\omicron} \acute{\alpha}\gamma\alpha\pi\eta\tau\omicron\varsigma \text{ mou } \acute{\omicron}\nu \acute{\epsilon}\delta\omicron\delta\acute{\omicron}\kappa\eta\sigma\epsilon\nu \eta \text{ } \psi\upsilon\chi\eta \text{ mou'}$
 $\theta\eta\sigma\omega \tau\omicron \text{ pne} \acute{\upsilon}\mu\alpha \text{ mou } \acute{\epsilon}\pi' \text{ a} \acute{\upsilon}\tau\omicron\nu, \text{ } \kappa\alpha\iota \text{ } \kappa\rho\iota\sigma\iota\nu \text{ to} \acute{\iota}\varsigma \acute{\epsilon}\theta\upsilon\epsilon\sigma\iota\nu \acute{\alpha}\pi\alpha\gamma\gamma\epsilon\lambda\epsilon\acute{\iota}.$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선포할 것이다)

이 구절을 비교해 볼 때 MT와 LXX의 가장 큰 차이점은 LXX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첨가된 것이다.

23) C. H. Dod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e Sub-Structure of New Testament Theology* (London: Nisbet, 1952), p. 89.

마태복음과 MT를 비교하면 $\eta\mu\acute{\omega}\nu$ 가 $\acute{\alpha}\gamma\alpha\pi\eta\tau\omicron\varsigma$ 로 되어 있는데, 이런 번역은 대단히 특수한 것으로 마태의 주석적인 번역으로 볼 수 있다.²⁴⁾ 또한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가 $\acute{\alpha}\pi\alpha\gamma\gamma\epsilon\lambda\epsilon\acute{\iota}$ 로 되어 있는 것도 보기드문 번역이나, LXX와 병행하지는 않는다. 이사야 48 : 20의 $\nu\omicron\sigma\sigma\upsilon\varsigma$ 의 히브리어 명령형이 LXX에서 이 동사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마태가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를 $\acute{\alpha}\pi\alpha\gamma\gamma\epsilon\lambda\epsilon\acute{\iota}$ 로 번역한 것은 의미에 따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²⁵⁾

둘째절(마 12 : 19)은 LXX와 마태복음이 MT와 의미상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으나, 제각기 다른 동사나 그 표현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NT) $\acute{\omicron}\nu\kappa \acute{\epsilon}\rho\iota\sigma\epsilon\iota \acute{\omicron}\delta\acute{\epsilon} \text{ } \kappa\rho\alpha\upsilon\tau\alpha\sigma\epsilon\iota, \acute{\omicron}\delta\acute{\epsilon} \acute{\alpha}\kappa\omicron\upsilon\sigma\epsilon\iota \text{ } \tau\iota\varsigma \acute{\epsilon}\nu \text{ } \tau\alpha\acute{\iota}\varsigma \text{ } \pi\lambda\alpha\tau\epsilon\iota\acute{\alpha}\varsigma \text{ } \tau\eta\nu \text{ } \phi\omega\nu\eta\nu \text{ } \alpha\acute{\upsilon}\tau\omicron\upsilon.$

(LXX) $\acute{\omicron}\upsilon \text{ } \kappa\epsilon\kappa\rho\acute{\alpha}\xi\epsilon\tau\alpha\iota, \acute{\omicron}\upsilon\delta\acute{\epsilon} \acute{\alpha}\nu\eta\sigma\epsilon\iota, \acute{\omicron}\upsilon\delta\acute{\epsilon} \acute{\alpha}\kappa\omicron\upsilon\sigma\theta\eta\sigma\epsilon\tau\alpha\iota \acute{\epsilon}\xi\omega \eta \text{ } \phi\omega\nu\eta \text{ } \alpha\acute{\upsilon}\tau\omicron\upsilon.$

셋째구절(마 12 : 20)에도 역시 다른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tau\epsilon\theta\lambda\alpha\sigma\mu\acute{\epsilon}\nu\omicron\nu$: $\text{sun} \tau\epsilon\tau\rho\iota\mu\acute{\epsilon}\nu\omicron\nu$, $\text{sun} \tau\rho\acute{\iota}\phi\epsilon\iota$: $\text{kat} \epsilon\acute{\alpha}\xi\epsilon\iota$, $\text{kap} \nu\acute{\iota}\zeta\omicron\mu\epsilon\nu\omicron\nu$: $\text{tu} \phi\acute{\omicron}\mu\epsilon\nu\omicron\nu$ 등이다. 셋째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된다. 즉 $\pi\alpha\tau\eta\varsigma$ 라는 부분이다. 이 말을 “진리로”로 번역하면 의미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 ζ 를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according to truth”로 봄이 좋을 것 같다.²⁶⁾ 마태복음 본문은 이 부분을 $\acute{\epsilon}\iota\varsigma \nu\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로, LXX는 문자 그대로 $\acute{\epsilon}\iota\varsigma \acute{\alpha}\lambda\theta\epsilon\iota\alpha\nu$ 으로 번역하고 있어 마태복음이 LXX를 따르지 않고 있다. Grindel의 논문은 사해사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pi\alpha\tau\eta\varsigma$ 가 $\acute{\epsilon}\iota\varsigma \nu\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로 된 것과 $\acute{\epsilon}\iota\varsigma \nu\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와 $\acute{\epsilon}\iota\varsigma \nu\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의 관계를 설명하고, $\acute{\epsilon}\iota\varsigma \nu\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가 $\acute{\epsilon}\iota\varsigma \nu\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로 된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다.²⁷⁾

마지막절(마 12 : 21)은 마태복음이 생략의 부분을 갖고 있음이 특이하다. 왜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생략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nu\omicron\sigma\sigma\upsilon\varsigma$ 와 다음 $\nu\omicron\sigma\sigma\upsilon\varsigma$ 사이를 건너 뛴 것이 아닌가 한다.²⁸⁾ LXX는 MT의 부정적 표현을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요) “그가 빛낼 것이다”라는 긍정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LXX와 마태복음이 함께 $\tau\omicron\psi$ $\acute{\omicron}\nu\acute{\omicron}\mu\alpha\tau\iota \text{ } \alpha\acute{\upsilon}\tau\omicron\upsilon$ 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MT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text{ip} \tau\eta\text{ } \nu\acute{\omicron}\mu\omicron\varsigma$ (for his law)와 관련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율법이라는 말 $\nu\acute{\omicron}\mu\omicron\varsigma$ 와 이름이라는 말 $\acute{\omicron}\nu\acute{\omicron}\mu\alpha$ 의 유사성과,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이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cf. 7 : 22; 18 : 20; 23 : 39; 24 : 5; 28 : 19)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LXX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²⁹⁾

24) John Grindel, “Matthew 12, 18~21”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XXXIV: 1 (1967, Jan), p. 110. 종을 $\text{pa} \acute{\iota}\varsigma$ 로 번역한 것이나, $\acute{\alpha}\gamma\alpha\pi\eta\tau\omicron\varsigma$ 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ext{pa} \acute{\iota}\varsigma$ 는 원래 “아이”라는 뜻이 있다.
25) *Ibid.*
26) RSV: faithfully, KJV: unto truth, Delitzsch: according to truth, E. J. Young: for truth, NIV: In faithfulness.
27) John Grindel, *op. cit.*, pp. 113~115.
28) *Ibid.*, p. 115.
29) cf. *Ibid.*, p. 112.

마태복음 12:18~21은 여러가지의 연구논의될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LXX의 영향을 전혀 배제 할 수 없으나, 마태복음 기자는 독자적으로 MT를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13:35)

이 구절은 시편78:2의 인용으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로 인용된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마태복음 본문과 LXX가 같으나, 후반부는 다르다. 전반부는 마태의 본문과 LXX 그리고 MT가 일치한다. 후반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MT) : $\text{וְדִבַּרְתִּי בְּיָדִי מִן־הַסֵּתֵר$

(내가 오래된 비밀의 말을 말할 것이다)

(LXX) $\text{φθέγγομαι προβλήματα ἀπ' ἀρχῆς.}$

(내가 태초로부터의 비밀의 말을 말할 것이다.)

(NT) $\text{ἐρεύξομαι κεκρυμμένα ἀπ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내가 세상의 창조로부터 숨은 일들을 말할 것이다)

MT, LXX, NT는 그 의미가 통하나, 마태 본문은 LXX를 따르지 않고 다른 번역을 쓰고 있다.

(21:5)

이 구절은 이사야 62:11과 스가랴 9:9에서 인용된 것으로 도입형식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이다. 여기서는 스가랴서 본문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MT의 וְיָגִיד 와 וְיִגְדֹּל 의 부분이 마태복음에 빠져있는 점을 제외하면, 마태복음은 MT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LXX는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너의 왕)에서 σου가 빠져있다. MT와 LXX는 의미상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으나, 마태복음은 LXX를 따르지 않고 다른 표현법을 쓰고 있다.

(27:9)

이 구절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라는 말로 인용된다. 이 구절은 스가랴 11:12~13의 인용이며, 예레미야 18:1f 과 32:6~9로부터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이 구절의 도입형식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로서 인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스가랴서의 인용이다. 이런 형식은 막1:2에 인용된 구절이 말3:1과 이사야 40:3인데,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사야의 글로서 인용된 것과 같다. 이런 형식은 복합된 구절의 인용에서 좀 더 뛰어난 선지자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 같다. 이 구절 역시 MT와 LXX에서 인용되었는데, MT에 더 의존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제 후반부를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자. 마27:6의 $\text{βαλεῖν αὐτὰ εἰς τὸν κορβανῶν}$ 은 27:9의 해석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마태의 견해에는 유다가 그 돈을 성전고에 가져왔고, 따라서 마태

는 ἵνα (토기장이)가 ἵνα (성전고)로 읽어질 수 있고, 혹은 이해 될 수 있는 것처럼 수 11:13을 인용하였다.

마지막 부분을 비교하면, 세가지가 다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NT와 MT의 유사성이 LXX보다는 강해 보인다.

(MT)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여호와의 집 안에서 토기장이³⁰⁾에게로 던졌다”

(LXX) $\text{καὶ ἐνέβαλον αὐτοὺς εἰς τὸν οἶκον κυρίου εἰς τὸ χωνευτήριον³¹⁾}$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주님의 집 안으로, 용광로 속으로 던졌다)

(NT) $\text{καὶ ἔδωκαν αὐτὰ εἰς τὸν ἀγρὸν τοῦ κεραμέως, καθὰ συνέταξέν μοι κύριος}$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대로 그들에게 토기장이의 발을 위하여 주었다.)

이상과 같이 마태가 도입형식을 가지고 인용한 11개의 구절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여보면 MT와 LXX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 신약 본문이 MT를 선택한 것은 2:15; 4:15; 8:17; 27:9 이며, MT와 LXX 사이에 차이점은 없으나 신약 본문이 LXX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1:23; 2:28; 12:18~21; 13:35; 21:5 등이다. 한가지 예외로 3:3은 LXX를 따르는 것이고, 2:23은 구약인용부분이 애매하다. 이와같은 고찰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가 도입형식으로 인용된 구절들은 거의가 MT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예수님의 인용

이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인용중,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인용하신 직접적인 인용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물론 직접적 인용이 아닌 것 중에도 연구할 만한 중요한 구절들이 많기는 하나³²⁾ 여기서는 직접적인 인용에만 제한 하기로 하겠다.

(4:4) [눅4:4]

이 구절은 신명기 8:3의 인용으로 “기록되었으되”(γεγραπται)라는 말로 인용된다. 이 구절을 LXX는 “οὐκ ἐπ' ἄρτων μόνω ζήσεται ὁ ἄνθρωπος, ἀλλ' ἐπὶ παντὶ ῥήματι τῷ ἐκπορευομένῳ δια στόματος θεοῦ”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은 τῷ라는 판사만이 생략되었을 뿐 그 이외 부분은 LXX와 일치하고 있다. MT와 LXX 그리고 마태복음의 인용은 그 의미가 일치한다.

(4:7) [눅4:12]

이 구절은 신명기 6:16의 인용으로 마태복음 인용부분과 LXX가 일치한다. 이 구절은 “또

30) RSV는 treasury 로 번역하고 있다.

31) 이 단어는 LXX에서 4번 사용되었다. (왕상8:51; 수11:13에 두번, 말3:2)

32) 마13:13; 21:33; 11:5.

기록되었으되”(παλιν γέγραπται)라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

(4 : 10) [눅 4 : 8]

이 구절은 “기록 되었으되”(γέγραπται)로서 인용되는데, 신명기 6 : 13의 인용이다. 이 구절의 MT는

: תִּירָא יְהוָה אֱלֹהֶיךָ וְיִירָא יְהוָה אֱלֹהֶיךָ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는 그를 섬길 것이다)

LXX는 אֱלֹהֶיךָ를 φοβήθησθαι로 번역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에는 προσκυνήσεις를 쓰고 있다. LXX는 MT를 따라 두려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마태복음은 경배한다 혹은 예배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뒷 부분에 LXX와 마태복음은 μόνω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LXX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³⁾

(5 : 21)

이 구절은 출20 : 13(LXX = 20 : 15)의 인용으로 “말한것을 너희가 들었다”(ἤκουσατε ὅτι ἐρρέθη τοῖς ἀρχαίοις)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 이 구절은 LXX와 일치한다. 특히 산상보훈에 나오는 구약 말씀의 재해석을 많은 학자들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나,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신학과 맞선 것이지 구약 자체와 맞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 신학을 비판할 때 구약을 이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마12 : 7 ; 막 2 : 26)

(5 : 27)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 : 14(LXX = 출20 : 13)의 인용으로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도입형식을 가지며, LXX와 일치한다.

(5 : 31)

이 구절은 신명기 24 : 1(LXX = 신24 : 3)의 인용으로 “또 일렀으되”(ἐρρεθη)라는 도입형식을 갖는다. 이 구절의 마태복음 인용은 “ὅς ἂν ἀπολύσῃ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 δότω αὐτῇ ἀποστάσιον”(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증서를 그녀에게 주게 할 것이다)으로 되어있고, LXX는 “... καὶ γράψῃ αὐτῇ βιβλίον ἀποστασίου”(그는 그녀에게 이혼의 책을 써 줄 것이다)로 되어있다.

마태복음 인용의 전반부는 신명기 24 : 1의 전반부를 요약한 형태의 인용이라 할 수 있고, 후반부는 MT와 의미상 차이는 없으나, LXX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LXX는 전반부에서 MT를 기초로 충실한 번역을 하고 있다. 이 구절은 종합적으로 볼 때, LXX보다는 MT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33) Nestle 성경에는 μόνω가 검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 않다.

(5 : 38)

이 구절은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도입형식으로 출21 : 24, 레24 : 20, 신19 : 21의 인용으로 LXX와 동일하다.

(5 : 43)³⁴⁾

이 구절의 도입형식은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이며, 레19 : 18의 인용으로 LXX와 동일하다.

(9 : 13) [12 : 7]

이 구절의 ἔλεος θέλω καὶ οὐ θυσιάω 부분은 호세아 6 : 6 [LXX = 6 : 7]의 인용이다. 9 : 13에는 인용문과 연결하여 “μάθετε τί ἐστίν (learn what it is)”라는 말이, 12 : 7에는 “εἰ δὲ ἐγνώκατε τί ἐστίν (if but you had known what it is)”라는 말이 있다. 호세아 6 : 6의 LXX는 διότι ἔλεος θέλω ἢ θυσίαν으로, 마태복음 본문과 유사하다.

(11 : 10) [눅 7 : 27]

이 부분은 “기록된 바”(γέγραπται)라는 말로 인용되는데, 말라기 3 : 1의 인용이다.

(MT) : וְיִרְאֶה אֱלֹהִים אֶת-הַמַּלְאָכִים וְיִשְׁלַח אֶת-יָדוֹ לְמַעַן יְבָרֵךְ אֶת-עַמּוּדָאֵי הַיָּם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NT) ἰδοὺ ἐγὼ ἀποστέλλω τὸν ἄγγελον μου πρὸ προσώπου σου, ὅς κατασκευάσει τὴν ὁδὸν σου ἔμπροσθεν σου.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할 것이다)

(LXX) ἰδοὺ ἐξαποστέλλω τὸν ἄγγελον μου, καὶ ἐπιβλέψεται³⁵⁾ ὁδὸν πρὸ προσώπου μου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답사할 것이다.)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 본문은 MT와 비교할 때 “너의 얼굴 앞에”(πρὸ προσώπου σου)라는 말이 첨가된 것과 뒤에 “너의”(σου)라는 말이 첨가된 점이다.³⁶⁾

MT에서는 “내 앞에서”(ἐμπροσθεν)로 되어있는데 마태복음은 “네 앞에서”로 기록함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약은 MT의 וְיִשְׁלַח를 Piel로 잘 번역하고 있다. (ὅς κατασκευάσει) 그러나 LXX는 ἐπιβλέψεται로 번역하여 Qal형으로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과 LXX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마태는 MT를 기초로 설명을 부연하면서 인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³⁷⁾

34) 19 : 19과 22 : 39도 레19 : 18의 인용으로 LXX와 동일하다.

35) ἐπιβλέπω라는 동사는 약 2 : 3, 눅 1 : 48 ; 9 : 38등에 사용되었는데 쳐다본다는 뜻이다.

36) Nestle 판에는 σου라는 말이 검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 않다.

37) Richard N. Longenecker, op. cit., p. 62. 그는 예수님의 인용중에서 MT에 더 가까운 구절로 이 구절과 18 : 16을 든다.

(13: 14~15)

이 구절은 이사야 6 : 9~10의 인용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ἀναπληροῦται ἡ προφητεία Ἰσαΐου ἢ λέγουσα)라는 긴 도입형식을 갖는다. 이 도입형식은 인용한 선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점과 “성취되었다”는 표현이 사용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구절중에서 유일한 것이다.

마태복음 본문과 LXX는 αὐτῶν 이라는 말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과, 움직이는 ν가 LXX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미세한 차이 외에는 모두 일치함을 볼 수 있다.

MT는 6 : 10에서 “이 백성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게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으로 되어 있고, LXX와 마태는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강박하게 되었고……”로 된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이 구절은 MT보다는 LXX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 4) [막 7 : 10]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로 인용된다. 전반부는 출20 : 12, 신 5 : 16의 인용이며, 후반부는 출21 : 17(LXX = 21 : 16)의 인용이다. 전반부는 LXX의 σου가 생략된 것이 다르고, 후반부는 출21 : 17과 비교해 볼 때 LXX의 αὐτοῦ가 생략된 것과 동사의 꼬리변화의 차이를 제외하면 LXX와 같다.

(15 : 8~9) [막 7 : 6 f]

이 구절은 이사야 29 : 13의 인용으로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라는 도입형식을 갖는다. MT와 LXX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MT) : אַרְבָּעָה אֲנֹכִי וְאַרְבָּעָה אֲנֹכִי וְאַרְבָּעָה אֲנֹכִי וְאַרְבָּעָה אֲנֹכִי וְאַרְבָּעָה אֲנֹכִי

(그리고 그들이 나를 두려워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에 의해 배워진 것이다.)

(LXX) μάτην δὲ σεβονται με, διδάσκοντες ἐντάλματα ἀνθρώπων ……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나를 예배하는 것은 헛되다.)

이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LXX와 MT 사이에 큰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마태는 LXX에서 발췌하여 인용하므로 LXX에 가깝다.

(19 : 5) [막 10 : 7 f]

이 구절은 창 2 : 24의 인용으로 “……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는 말로 인용된다. 이 구절은 LXX, NT, MT 사이에 의미상 차이는 없다. LXX와 마태복음의 차이는 ἔνεκεν: ἔνεκα, 마태복음이 αὐτοῦ를 생략하고 있는 점, προσκολληθήσεται πρὸς τὴν γυναῖκα: κολληθήσεται τῇ γυναικί 등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으니, 이 구절은 MT와 LXX에서 함께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 18~19) [막 10 : 19; 눅 18 : 20]

이 구절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출 20 : 12~16과 신 5 : 16~20에서 인용된다. LXX, MT, NT는 그 순서와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구절은 구약의 직접적인 인용으로는 보기가 힘들며, 계명의 중요한 요점을 요약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21 : 13) [막 11 : 17; 눅 19 : 46]

이 구절은 “기록된바”(γεγραπτα)라는 말로 인용되며, 사 56 : 7의 인용이다. 이 구절은 LXX와 일치한다.

(21 : 16)

이 구절은 “읽지 아니했느냐”는 말로 인용되는데 시편 8 : 2 (MT, LXX = 8 : 3)의 인용이다. LXX와 마태복음은 일치하는데, MT와 LXX 사이엔 차이가 있다.

(MT) : יְיָ מִן־פִּי וְיִשְׂרָאֵל מִן־פִּי וְיִשְׂרָאֵל מִן־פִּי וְיִשְׂרָאֵל מִן־פִּי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부터 당신이 힘³⁸⁾을 얻었다)

(NT, LXX) ἐκ στόματος νηπίων καὶ θηλαζόντων κατηρώσω αὐτὸν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부터 당신이 찬양을 완전케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이 강한 LXX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본다.

(21 : 42) [막 12 : 10 f; 눅 20 : 17]

이 구절은 “성경에……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로 인용된다. 이 구절은 시 118 : 22~23 (LXX = 117 : 22~23)의 인용으로 LXX와 일치한다.

(22 : 32) [막 12 : 26; 눅 20 : 37]

이 구절은 “……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는 말로 인용되는데, 출 3 : 6의 인용이다. LXX의 “τοῦ πατρὸς σου”가 생략된 것외에는 LXX와 일치한다.

(22 : 37) [막 12 : 29 f; 눅 10 : 27]

이것은 율법사의 “어느 율법이 크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으로 신 6 : 5의 인용이다. MT의 אֱלֹהִים, אֱלֹהִים, אֱלֹהִים가, LXX는 διανοίας, ψυχῆς, δυνάμεως로, NT는 καρδιά, ψυχῆ, διανοία의 순으로 달라져 있다. 또한 LXX는 “ἐξ ὅλης τῆς……”로 되어 있으나, NT는 “ἐν ὅλη τῇ……”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구절은 LXX의 영향이 약한 구절로 볼 수 있다.

(21 : 44) [막 12 : 36; 눅 20 : 42 f]

이 구절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라는 말로

38) יָיָ는 힘, 능력이라는 뜻 외에 찬양이라는 뜻도 있으나(NIV) 문맥상으로 보아 힘, 능력이라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우리 성경에는 “권능”으로 해석되었다.

인용되며, 시110 : 1 (LXX = 109 : 1)에서 인용하였다.

마태복음이 첫번째 κύριος 앞의 관사 ὁ 를 생략한 것과 ὑποπόδιον 대신 ὑποκάτω 를 사용한 것이 LXX와 다른 점이다. 마태복음에 사용된 ὑποκάτω 는 MT의 ὀπίσθω 과 일치한다. 이 구절과 같은 눅20 : 42f 에서는 LXX와 같은 ὑποπόδιον 을 사용하고 있다.

(24 : 15) [막13 : 14]

이 구절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라는 말로 인용되는데, 단 9 : 27 ; 12 : 11에서 왔다. 단 9 : 27의 LXX는 “τὸ ἔροσν βδέλυγμα τῶν ἐρημώσεων,” 12 : 11은 “τὸ βδέλυγμα ἐρημώσεως”로 되어 있는데, NT에는 “τὸ βδέλυγμα τῆς ἐρημώσεως”로 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LXX의 인용으로 볼 수 있다.

(26 : 31) [막14 : 17]

이 구절은 “기록된바”(γεγραπτα)라는 도입형식을 갖는데, 스가랴13 : 7의 인용이다. 세 본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MT) : כִּי כִּי־יִשְׁחָדוּן יִשְׁחָדוּן כִּי־יִשְׁחָדוּן כִּי־יִשְׁחָדוּן

(그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LXX) πατάξατε τοὺς ποιμένας, καὶ ἐκπάσσετε τὰ πρόβατα.

(그 목자들을 치라 그리고 그 양떼를 이끌어 내라.)

(NT) πατάξω τὸν ποιμένα, καὶ διασκορπισθήσονται τὰ πρόβατα τῆς ποιμνῆς.

(내가 그 목자를 칠것이다, 그리고 그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위의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LXX는 후반부가 MT와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고, 또한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보인다. MT와 NT의 차이는 MT가 명령형이나, NT는 서술형 미래로 되어있고, 특히 “내가”라는 1인칭 주어가 사용된 것이 특이하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 구절을 강하게 적용시키시므로 형태의 변화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이 구절은 LXX의 영향이 적은 구절로 판단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구절들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 부류의 구절의 도입형식을 살펴보면, “기록되었다”(γεγραπτα)는 말로 인용되는 것으로는 4 : 4 ; 4 : 7 ; 4 : 10 ; 11 : 10 ; 21 : 13 ; 26 : 31등이 있으며,⁴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로 인용되는 구절은 19 : 5 ; 21 : 16 ; 21 : 42 ; 22 : 32이다. 그리고 산상보훈중 5 : 21, 27, 38, 43은 “……라는 것을 들었다”는 말로 인용된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15 : 4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용되는 것과, 13 : 14~15이 구약의 성취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LXX와 MT와의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인상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구

39) Richard N. Longenecker, *op. cit.*, p. 71.

40)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γεγραμμένος 라는 형태가 사용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가 않는다. (눅 4 : 18f ; 22 : 37 ; 요 6 : 45 ; 10 : 34 ; 15 : 25)

절들은 LXX와의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LXX와 같다고 해서 그것이 꼭 LXX를 인용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LXX가 MT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마태가 직접 인용한 구절과는 대조적인 인용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LX X와 일치하는 구절 : 4 : 7 ; 5 : 21 ; 27, 38, 43 ; 21 : 13, 42 ; 22 : 32, 약간의 차이로 LXX와 비슷한것 : 4 : 4 ; 9 : 13 ; 15 : 4 ; 24 : 15, LXX와 MT가 복합적인 것 : 4 : 10 ; 19 : 5, 18~19 ; 22 : 37, LXX와 MT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LXX를 따르는 것 : 13 : 14~15 ; 15 : 8 ~ 9 ; 21 : 16, LXX보다는 MT를 기초한 것 : 5 : 31 ; 11 : 10 ; 22 : 44 ; 26 : 31이다. 이러한 분류는 견해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V. 결론 : 비교 및 검토

이상에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마태가 도입형식을 이용한 성경의 본문은 MT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예수님의 직접적 인용부분은 크게 LXX에 의존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경의 구약인용이 어떤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되어진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복음서 저자들에게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과 교훈을 보도함에 있어서 문체나 구성의 자유를 준 것처럼 신약 저자들의 구약인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유를 주셨음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구약인용 중에서 LXX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 이는 MT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신약저자는 LXX의 사용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때 이를 사용 할 수도 있으며, LXX의 번역이 본문의 사상에 더 부합되는 표현이라고 보아질 때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마태가 직접 인용한 구절과 예수님의 인용부분이 각각 MT와 LXX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Gundry는 마태와 마가가 함께 인용하는 부분은 거의가 LXX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말하였고,⁴¹⁾ 많은 학자들은 주로 공관복음문제와 관련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인용, 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인용 부분은 예외가 있으나 LXX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주장한다.⁴²⁾ 물론 이런 설명은 마태 자신의 독특한 인용부분이 MT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문서설 자체를 부인하는 보수적 씨클에서는 그 설명을 받아 들이기가 곤란하다. 또한 우리는 이런 설명과 맞지 않는 구절이 많이 있음을 본다. 즉 마태복음에만 인용된 구절인데 LXX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구절(5 : 21, 27, 38, 43) 또는 LXX와 MT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LXX를 따르는 구절이 있다. (13 : 14~15 ; 21 : 16)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공통으로 인용된 것 중에서도 MT와 LXX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LXX를 따르지 않고 MT를 따르는 구절이 있다. (11 :

41) R. H. Gundry,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St. Matthew's Gospel* (Leiden: Brill, 1967)

42) N. Hillyer, *op. cit.*, pp. 18~19.

10; 22: 44; 26: 31) 그리고 LXX와 MT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구절도 공통인용 구절 내에 많이 있다. (19: 5; 4: 10; 19: 18~19; 22: 37) 따라서 문서설을 기초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편리하도록 LXX에 맞추었다는 설명도 마태복음에 관한 옳지 않다.

또한 LXX의 많은 인용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마태의 의도적인 인용이 MT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

Longenecker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 네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³⁾ ①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사용되던 다언어 형태 ② 성경본문의 표준화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③ 예수님의 어떤 구절에 대한 해석적(Pesher) 취급 ④ 예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일찍 편집되어 있었을 가능성등을 들고 있다. 그는 특히 그 예수님의 말씀의 어록집이 LXX 형태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말하면서 마태는 분명히 MT를 더 좋아했으나 말씀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님의 말씀부분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나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나 이것 역시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더 설명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세 언어(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아셨고, 마태 자신도 이 언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예수님 자신에 의한 본문의 선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안다.

본고를 마치면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더욱 깊은 논의를 통하여 신·구약성경의 연관성과 그리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줄 알며, 비판적 견해나 혹은 설명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준비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43) Richard N. Longenecker, *op. cit.*, p. 66.

참 고 문 헌

- De Waard, J. *A Comparative Study of the Old Testament Text in the Dead Sea Scrolls and in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1965.
- Dodd, C.H.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e Substructure of New Testament Theology*. London: Nisbet, 1952.
- Driver, G.R. *The Judean Scrolls*. Oxford: Blackwell, 1965.
- Ellis, E.E.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7.
- Grindel, John. "Matthew 12, 18-21"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XXIV: 1 (1967, Jan): 110~115.
- Grobel, K. "Quotations" *IDB*, Nashville, 1962.
- Gundry, R.H.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St. Matthew's Gospel*. Leiden: Brill, 1967.
- Hasel, Gerhard.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8.
- .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2.
- Hillyer, N. "Matthew's Use of the Old Testament" *Evangelical Quarterly*, XXXVI (1964): 12~26.
- Kistemaker, Simon K. *The Gospels in Current Stud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2.
- Longenecker, Richard N.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Grand Rapids: Eerdmans, 1975.
- Nicole, Roger.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by C.F.H. Henry, Grand Rapids: Baker, 1958: 137-151.
- .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New Testament" in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ed. by Ralph G. Turnbull, Grand Rapids: Baker, 1967: 111~115.
- Rendall, Robert. "Quotations in Scripture as an Index of Wider Reference" *The Evangelical Quarterly* XXV: I (Jan, March, 1963): 214~221.
- Rosenbloom, J.R. *The Dead Sea Isaiah Scrolls: A Literary Analysis*. Grand Rapids: Eerdmans, 1970.
- Verhoef, Pieter 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in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 ed. by J. Barton Payne, Waco, Texas: Word Books, 1970: 280~303.